

1. 강*셉 (미국 경영정보전문가 양성과정 1기 수료)

: Bi*e**ne Corp 취업 1년 근무 후 한국 Bi*e**ne Corp 한국지사 정직원으로 발령

1) 미국 지원 동기:

미국은 세계 경제력 1 등의 나라이며 미국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경영학을 배우며 평소 미국에 가고 싶다는 욕망이 있던 중 K-MOVE 라는 기회가 찾아왔고 난 운이 좋게도 그 기회를 잡게 되었다.

2) K-Move 스쿨 연수 과정:

영어교육은 실제 회사에서의 상황들을 가정하여 역할극도 해보고 미국에서 첫 인사 및 자기소개부터 email 쓰기까지 실무에 필요한 거의 모든 기본적인 영어와 비즈니스 예절 및 문화 등도 함께 배운 뜻 깊은 시간이었다. 실제로 회사에 입사하여 의사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 가르쳐 주셨다.

직무교육은 정말 다양한 강사님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강사님들의 story 를 듣기도 하고 현장 및 전문 지식들을 배우기도 했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모두 희망하는 분야가 달랐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간접 경험들이 진로를 택하고 분야를 선택함에 있어 도움이 되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3) 기업처 인터뷰 과정 및 결과:

offer 를 받은 곳은 총 3 곳, 인터뷰를 보고 합격한 곳은 2 곳이었다. IT 관련 Mobile 업체와 Logistics 관련 Forwarding 업체. 두 분야 모두 나에게겐 새롭고도 생소한 분야였다.

내가 입사하게 된 회사는 미국 LA 에 본사를 두고 한국, 캐나다, 멕시코, 미국 전역에 지사를 두고 있는 Forwarding 회사이다. Forwarding 은 화주 대신에 선적 관련 일과 서류 업무를 대행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서비스업이다.

4) 현지 근무와 생활:

사전 답사까지 한 회사의 첫 출근 날 버스의 배차간격이 30분 이상인 줄도 몰랐던 난 지각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약 4KM 의 거리를 아침부터 경장을 입고 구두를 신은 채로 뛰었다. 물류에 대해서 백지와 같았던 내 머릿속을 생소한 무역용어들과 한국에서 가져간 두 권의 책으로 채워가는 일은 쉽지 않았다. 공부한 것들을 사무실의 현장에서 접목시켜가며 직원들을 과도한 질문들로 괴롭혀 가며 물류의 세계를 향해 나아갔다. 클라이막스는 4-7 월 약 세 달 간 체리 시즌에 맞춰 장기 출장을 다녀온 것이다. 미국의 농산물이 생산되어 검역 및 가공과정을 거쳐 트럭에 실려 옮겨지고 비행기로 한국까지 운송되는 전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발에 땀이 나게 뛰어가며 배운 것은 돈 주고도 배우지 못할 값진 경험이었다. 현재는 Costco 팀에서 미국 및 캐나다에서 생산된 다양한 물건들을 한국 Costco 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

해외취업을 생각한다면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 시작이 반, 아니 그 이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각 개인에게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스스로를 믿었으면 좋겠다. 두려워 말고 도전했으면 좋겠다. 혹여 전공분야가 아닌 곳으로 갈지라도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신기하게도 생물학을 통해 배운 구조화와 메커니즘이 물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배운 노하우를 말하자면, 모든 일에 임할 때 이것이 내 소명이고 내 일인 것처럼 마음을 먹고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아무리 힘든 일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인턴이라는 직급에 한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긍정적인 욕심을 부려보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분명히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크루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창고에서>

후기를 작성하며 인턴을 시작하던 당시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했을 때 성장했다라는 것을 느꼈다. 최근, 운이 좋게 회사로부터 job offer 를 받아 3 월 20 일부로 한국지사로 출근을 할 예정이며 2-3 년 뒤 주재원으로 다시 미국으로 오는 것을 꿈꾸고 있다.

2. 김*지 (미국 경영정보전문가 양성과정 2기 수료)

: Ch**h International, LLC 취업 1년 근무 후 귀국

1) 미국 J1 인턴십 지원동기

전공이 수학과 통계였지만 영어의 필요성을 느끼고 2년 동안 저에게 새 전공만큼 어려운 영어공부를 바닥부터 시작하여 실력을 쌓아나갔고, 미국 그리고 영어에 관심이 많았던 시기였기에 K-Move 스쿨은 기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동시에 전공을 살려서 회계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경험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얼마나 잘 버티고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자신감을 얻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영어선생님의 많은 조언들로 실수 없이 미국 인턴십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2) 근무회사 소개 및 업무내용

맡은 업무는 안경유통회사에서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포장하고, 배송하는 업무입니다. 사무실은 10명으로 구성된 작은 회사이지만 한국계 미국인이신 매니저 밑에서 고객전화를 받는 태도부터 고객 하나하나 자료들을 관리하고, 포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는 업무의 전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 2달 정도 업무를 배우면서 항상 메모하고, 스스로 연습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틈틈히 직원들과 미국에 대한 생각, 문화, 생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이 모든 업무의 진행을 영어로 사용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영어를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3) 미국생활

제가 사는 곳은 회사에서 걸어서 20분정도되는 곳에 한국인 노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변엔 학교들과 공원이 있는 살기좋은 동네였고, 회사가는 길에는 스페인인들이 많은 시내지역으로 곳곳에는 미국 현지 식당 그리고 스페인 현지 마켓 등이 있어서 출근길마다 미국에 있다는 기분을 실감하곤 합니다.

평일엔 회사업무에 충실히 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어울리는 시간을 보냅니다. 직원분들과 영어로 일상적인 일화부터 사회, 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영어 관련한 도서와 뉴스 기사 읽기 등 회사에서 업무 중간에 남는 시간을 통해 충분한 개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취미활동으로 요가를 좋아해서 주 1~2 회 미국인들과 실내 또는 실외에서 꾸준히 체력을 관리하였습니다. 또 직장인이라 외국인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다양한 주제로 모여서 활동하는 웹사이트에 신청하고 "EXCHANGE LANGUAGE & CULTURE"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남은 시간에는 성 패트릭 데이에 열리는 SAINT PATRICK'S DAY FESTIVAL 관람, 패션 또는 자연사 박물관 등 예술분야로 볼거리가 많은 뉴욕의 문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활동들을 꾸준히 하면서 미국문화를 이해하는 배우는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4) 해외 취업을 추천하는 이유

남녀 평등과 존중,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 받을 기회가 타국가보다 미국은 많다는 점, 일하는 환경은 다르지만 외국인 회사 또는 외국인들이 함께 일하는 곳에 취업한다면 융통성 있는 회사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일하면 어느 부서든 배울 기회가 주어지고 편견 없이 저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5)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주는 TIP

미국 인턴십을 준비하면서 밤낮으로 이력서 수정하고, 영어면접, 에이전시 면접, 각종 서류 준비 등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인턴십 참여 비용과 미국을 오기 위해 쓰이는 비용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부푼 꿈을 가지고 기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본인이 미국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를 생각하고, 실패하고 실수해도 다시 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장*혁 (미국 경영정보전문가 양성과정 3기 수료)

: M* Global S**el, Inc 취업 후 근무 중

1) 미국 J1 인턴십 지원동기

유럽 배낭여행, 동남아시아 선교여행, 싱가포르 교환학생 등 해외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하게 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내취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해외취업에 도전할 것인가? 고민하던 중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부모님을 설득하여 해외취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2) 근무회사 소개 및 업무내용

제가 근무하는 곳은 철강 무역 회사로써 LA 에서 30 분 떨어져 있는 '세리토스' 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한국, 타이완, 중국, 미국 현지에서 철(Steel)을 수입해서 미국 국내(Domestic) 회사들에게 판매하는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계 파트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RP 와 Quick Book(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부터 판매까지 무역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숫자들을 기록하고 차이를 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주로 개인간이나 기업간에 Check(수표)으로 거래를 합니다. 수표라는 번역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미국 내에서는 다른 기업들과 돈을 주고 받을 때 수표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수표를 받아서 은행에 가지 않고 바로 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우편으로 다른 회사에 보내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기업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 생소하지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Invoice 나 Packing list 같은 무역에 필요한 서류들 또한 만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웨어 하우스에서 일손이 필요하면 웨어 하우스의 업무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보다 외국인 동료의 비율이 높아서 업무 환경에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회계파트의 한국인 상사분과 일을 주로 하지만 외국인 동료들과 함께 소통하며 영어로 걸려오는 전화와 이메일도 처리하며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업무 환경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무를 시작한지 1 달이 되어 많이 부족하고 업무를 배우고 있지만, 스스로가 더 노력한다면 영어 실력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3) 미국생활

평일에는 저녁 7 시쯤 집에 들어옵니다. 퇴근해서는 주로 한식을 해 먹습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에는 미국 대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임에 참여하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미국교회와 한국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 분들과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며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4) 해외 취업을 추천하는 이유

해외연수과정을 통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지금,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국내 취업만을 고집했다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 다양한 문화와 경험들 등 제가 해외 취업을 추천하는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만 나와서 영화 감독을 하고 있는 친구,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기 위해 서른이라는 나이에 대학교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친구 등 우리나라에서 대학, 직장, 결혼이라는 획일적으로 가도록 권하는 길을 가지 않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며 제 삶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1 년 뒤에 국내 취업을 도전하게 될 때에 지금 미국에서의 1 년 동안의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값진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의 지인 분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이 떠오릅니다. “나는 한국에서만 살아본 사람이 만든 햄버거보다 미국에서 살아본 사람이 만든 햄버거를 먹을 것이다.” 만약 해외 취업과 국내 취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는 감히 해외 취업에 도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겐 젊음이 있고 세상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5)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주는 TIP

① ‘과감한 도전 정신’ -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K-Move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심으로만 끝났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까지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과감하게 무언가를 선택하고 시도하는 도전정신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해외 취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도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② ‘인내와 끈기’ -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포기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면 끝까지 인내하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국내 취업에 성공하는 친구들로 인해 흔들리기도 하고 인터뷰 오퍼가 들어오지 않거나 매칭이 안되어 포기하기도 합니다. 미국에 와있는 저는 너무나도 만족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진감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오셔서 많은 경험, 여행 하시면서 인내의 달콤한 열매를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③ ‘해외로 눈을 돌려라.’ - 국내 취업 만을 고집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며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보면 압니다. “아, 이래서 해외로 나가라고 하는구나..” 깨닫게 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저의 선택이 맞았고 제가 바라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며 제 스스로가 더 큰 미래를 그리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해외 취업 도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으로만 끝날 것인가, 직접 와서 경험하고 느낄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4. 이*현 (미국 경영정보전문가 양성과정 4기 수료)

: S*D & S***S 취업 후 근무 중

1) 미국 J1 인턴십 지원동기

저도 그저 4 년제 대학을 다니며 남들 다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K-Move 스쿨을 알게됐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내 젊은 20 대를 이렇게 흘려보내도 후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고민끝에 다시 오지 않을 후회없는 20 대를 보내기 위해 최종 결정,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근무회사 소개 및 업무내용

제가 근무하는 곳은 고철, 알루미늄을 미국 현지 기업에서 구매하여 재활용, recycling 을 목적으로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직원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 거주하고 계시는 Korean American 이며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계십니다. 회사는 크게 GTI(logistics), Steel, Aluminum, QC(Quality Control), Accounting, Sales 나뉘지며 저는 현재 Accounting 팀에서 회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을 하며 인턴인 저도 정직원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이지만 재활용이라는 유망한 산업분야이고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회사에서 좋은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 미국생활

개인적으로 처음 미국이란 국가를 생각했을 때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총기사고나 인종차별 등 한국에서는 없는 문제들이 걱정스러웠으나 막상 미국에 오니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한국에서 찾을 수 없는 여유로움이 있으며 좋은 날씨와 맑은 공기, 친절함 사람들 등 왜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살려고 하는 지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퇴근 후에는 주로 Meet-up 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며 비치발리볼, 농구, 언어교환 등 시간과 날씨가 맞는 날에는 항상 사람들을 만납니다. Meetup 에서 친구들을 만나 사귀어 주말에는 같이 다운타운이나 외곽으로 놀러가기도 합니다. 미국에 와서 다른 나라 친구들과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즐기면서 좋은 추억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근처 해변가나 Universal Studio, Disney Land, Griffith 천문대 등 실재 없이 여행을 다닙니다. 미국 여행은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의 삶은 한국에서의 삶과 달리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삶이 풍요로워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해외 취업을 추천하는 이유

해외취업 특히 미국에서의 인턴 경험은 그저 스펙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생활은 교화학생이나 유학을 통해 올 수 있지만 해외 취업은 그저 놓고 즐기는 정도가 아닌 책임감을 부여받아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값진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이라는 선진국에서 근무하는 것은 더 좋은 그리고 발전된 비즈니스 문화를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5)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주는 TIP

자신이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그리고 성취하고 싶은지 계획을 세우고 오면 더욱 효율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저 스펙 쌓기의 하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각자가 성취하고 싶은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다보면 해외취업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인생에서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5. 이*호 (미국 경영정보전문가 양성과정 3기 수료)

: For*a* 취업 1년 근무 후 E2 비자 논의 중

1) 미국 J1 인턴십 지원동기

어학연수와 해외인턴을 비교해 봤을 때, 해외 인턴으로서 얻을 것이 훨씬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언어를 배우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할 수는 없겠지만, 그보다 더 값비싼 해외에서 인턴으로서의 경험, 금전적인 문제, 직접적인 문화경험 등을 고려했을 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고 고민없이 K-Move 스쿨에 지원했습니다.

2) 근무회사 소개 및 업무내용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기업은 포워딩 기업이며 그 중에서도 저는 수출을 맡고 있습니다.



위 첫 번째 사진은 회사 전경이고, 두번째 사진은 창고에서 수출하게 될 물건들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파악하고 작업하는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몇몇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이 분명히 있을 것 입니다. “창고에서 물건들을 옮기고, 택배 상하차처럼 몸을 써야할 것 아니에요!?” “깔끔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바쁠 때는 제가 돕기도 합니다. :) 하지만 멕시코 직원 2명의 주업무가 창고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창고업무를 하는 일은 극히 드물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궁금해하시는 점! “외국인이 몇 명이나 있나요? 한국인은 얼마나 있어요?” 정말로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약 80%가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무실 내에서는 대부분 한국어로 소통을 합니다. 하지만 전화나 메일상은 대부분 영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를 항상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창고직원이 멕시코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역시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제가 사무업무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고객들과 이메일로 그들의 요구에 대해 답하며, 그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왔을 때는 모든 일들이 처음이라 쉽지가 않았습니다.(지금도 조금은..?) 하지만 항상 일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임하다보니 저에게는 그런 과정들이 힘들기보다는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들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장님을 포함한 직원분들 역시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업무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주셔서, 보다 일을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었으며 회사에도 잘 적응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정말 다른 점 중 하나는 퇴근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알아서 일을 마무리 하고 난 뒤 퇴근을 합니다.

한국 역시 있다고는 하나, 대부분의 기업이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기업내의 수직적인 문화와, 한국문화의 정, 공동체 의식이 등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정이 없고 서로 말도 안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이 할 것은 개인이 하고, 마무리하면 퇴근하고, 본인의 관계나 위치 역시 참고 직원이든 사무직원이든, 사장이든 인턴이든, 보다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3) 미국생활

집 문제가 고민되었지만 교육기간 중 선생님께서 집을 구하는 절차 및 노하우, 웹사이트를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사관 인터뷰 합격 후 먼저 AIR BNB 를 이용하여 잠시 머무를 공간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출근일 5 일전에 미국에 도착하여 휴대폰과 통장을 개통하고, 본격적으로 집찾기에 나섰었습니다. AIR BNB 에 거주하며 메일, 한국에서는 집주인과 개인적으로 할 수 없었던 문자와 전화, 그리고 미국에 있으니 집에 직접 찾아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현지인들과 부대끼며 살고, 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싶은 것이 가장 큰 목표였기 때문에 외국인 룸메이트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AIR BNB 에 약 2 주정도 거주하면서 집을 찾는데 남들보다 오랜시간을 투자했으며, 결국에는 Torrance 지역에서 외국인 룸메이트 2 명과 같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노력을 했으며, 그것을 이루어 냈을때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가 없을때는 퇴근 후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 얼마전(미국 온지 2 달되는 시점) 면허를 취득하고, 중고차를 구매하여 운동을 다니고 있습니다. 시간이 맞으면 룸메들과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주말에는 여기있는 동안 항상 어디라도 가보려고 생각을 해서 많은 곳들을 갔었습니다.



4) 해외취업을 추천하는 이유

해외인턴은 살면서 지금이 아니면 경험해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도 여행은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직접와서 일해보고, 오랜기간동안 거주하면서 그 나라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으며 업무와 여행 두가지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주는 Tip

본인이 무엇을 목표로 해외취업을 하고자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1년이 정말 보람차고 좋았던 경험인 반면에, 또 다른 분들은 괜히 다녀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경험을 목표로 왔기때문에 정말로 만족하며 지내고 있고, 영어 역시 나름대로 많이 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와서 부딪히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목표를 위해 시도하고 도전하는 만큼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만 있는 기업에 가더라도 본인이 영어에 대한 관심이 어느정도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업무를 배우는 것 역시 본인이 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혼자 집구하고, 차를 구하는 과정 역시 정말 많은 경험이고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목표를 선정한 후 본인만의 기준을 정하고, 만약 그 기준에 부합하여 해외인턴으로 오게 된다면,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미국취업.인턴 참여자 실제 후기 보기 => www.icnkorea.com 또는 <https://blog.naver.com/icngroup>

<2019 년 국비지원 K-Move 스쿨 지원 또는 다이렉트 J1 미국취업 문의>

- ICN Group 한국지사(역삼동): Tel. 070-4848-1163 / 02-3445-4278 (미국 취업 및 비자 상세)